

# “학생·교사 24시간 함께 집단생활...송구하고 미안하다”

## 광주 TCS국제학교 교감에 들어보니

10명 넘게 팀을 꾸려 물려다니는가 하면, 하루종일 숙소에서 함께 머무르는 기숙학교 행태로 보면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광주시 광산구 TCS 국제학교의 집단 감염 사태는 충분히 예고됐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온종일 함께 생활, 확산 도화선**=광산구 TCS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금까지 117명에 이른다. 이곳 외 ACE TCS국제학교에서도 37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들 국제학교는 많은 교사·학생들이 비좁은 빌라·아파트 등에서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게 특징으로, 코로나 방역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접) 환경 속에 노출되다보니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 밖

문 연지 2년 6개월...공부부터 식사까지 하루종일 같이 해 감염 취약 영어·유학·신앙심 맞아떨어져 월 교육비 80만원 부담에도 학생수 급증 주말엔 쓰레기 줍기 등 봉사도...교감 “아이들 치료에 관심 가져달라”

에 없는 구조였다.

광산구 TCS 국제학교의 경우 전체 135명 중 86.6%인 117명이 감염된 것이다.

광산구 TCS국제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한 건물 2-3층에 마련된 7개의 기숙사 시설에서 한 실에 6~11명이 함께 머물도록 했다. 교사 1-2명과 유치원생부터 18살에 이르는 학생까지 10여명이 함께 자고 먹고 공부하면서 생활하도록 했다는 게 학교 교감의 설명이다.

그러나 영어 교육과 유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입학생들이 많아져 선교사 집까지 숙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들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주말, 교회 인근이나 근린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팀별 시장 탐방 활동을 하는데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쉽게 바이러스가 확산하는데 용이했

다는 게 방역 당국 지적이다.

오경자 광산구 TCS 교감은 “아침·저녁으로 소독을 진행했고 아이들에게 KF94마스크를 배포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 “아이들 치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몰리나**=광산구 TCS국제학교의 경우 문을 연 지 2년 6개월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학생수가 급증, 학생과 교사들 100여 명이 넘었는데 미국 기독교커리큘럼 등 기독교 학교 가치관 수업에 따른 신앙심 고취 및 영어 집중교육 등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졌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외국을 오가는 선교사들의 영어 교육을 직접 한다는 점도 유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7시 기숙사에서 일어나 버스·승합차로 교육

시설인 광산구 TCS시설로 옮겨 성경학습, 독서, 자기주도 학습, 정규수업(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저녁에는 매일 영어수업을 진행한 뒤 밤 9시께 기숙사로 이동한다. 9학년 이상은 제 2 언어수업도 진행한다.

아이들 10명에 교사 1-2명이 팀으로 구성되며 주말에는 교회 인근이나 근린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이나 팀별 시장탐방, 주말운동 등을 한다. 학생 대부분이 목회자 자녀 등으로 입학금 100만원, 월 교육비가 80만원(유치원생 30만원) 상당이다. 전체 12학년제로 12년을 다니면 졸업하고 외국 유학을 갈 수 있다. 광산구 TCS국제학교는 2년 반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장에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입 끊겨 막막”...특고직·프리랜서 등 몰려 복직

광주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장 1·2차 수령자 제외에 발길 돌리기도

“1차·2차 신청 때 못 받았는데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이 몰려들면서 이른 아침부터 복직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증빙서류를 들고 부랴부랴 집을 나선 노동자들로, 경기 침체에 살길이 막막하다며 고용센터를 찾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50명이 신청

서를 냈다.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일찍 접수를 마감할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에만 70명이 몰려들었다. 1분당 1명꼴로 서류를 낸 것으로, 학습지교사·강사·방문판매원·오토바이 배달기사 등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받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지난 1·2차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이번에 신청할 수 없고 온라인 접수도 모두 마무리된 뒤라 많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다”면서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지난해 1차·2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은 제외되는 줄 모르고 추가 지원이 가능한 줄 알고 현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경로당 안마 파견일을 하는 시각장애인 정보(69·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도 이날 사회복지사의 손을 잡고 접수 현장을 찾았다.

정씨는 “지난해 경로당이 문을 닫아 지난해 2월부터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한달에 70만원을 채 못 벌고 있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받지 못했다는 김모(55)씨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는데, 서류만 보고 1·2차 때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혹시 몰라 서류를 보완해 다시 찾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벌없는 사회, 광주TCS국제학교 고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 사회)은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광주 TCS국제학교 측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인가 교육 시설인 광주 TCS 교육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로 오인하게 하고, 등록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이 종교 시설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월가월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빠진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항소...“구호조치 안해 2차사고” 기각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기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도, 음주 운전을 하며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다, 즉각적 구호조치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새벽, 자신의 차를 몰고

여수시 망양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할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80km)를 초과해 120km로 달리다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맞은편 도로에 쓰러진 B씨는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는 등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지만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사고 뒤 즉각적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영산강 생태계 교란종 조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8일 생태계교란생물 유통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종은 뉴트리아, 큰입배스, 미국가재, 악어거북, 빛살무늬 미꾸라지 등 34종에 이른다.

영산강청은 관련 업체 현장 점검과 인터넷 감시

활동을 병행하며 불법행위를 찾아낼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생태계교란생물을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안읍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유기된 미국가재, 악어거북, 플로리다 붉은 배 거북 등이 영산·섬진강 분류와 지류에 확산한 사례가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동구 대인동, 싼 땅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유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문의. 010-3605-5000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로얄(34)방3		4,890	3,4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하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